

# “여순사건 제대로 알리자” 아카이브 구축 시동

### 여수시, 실무위 구성...역사 자료·미디어·유적지 등 5개 콘텐츠 내년 10월 19일 73주년 기념일 맞춰 시 홈페이지서 시범 운영

여수시가 여순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여순사건 아카이브(기록보관소)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여순사건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사업으로 추진된다. 각종 문헌과 사료, 사건의 전개과정과 유적지 소개, 각종 사진과 영상 등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시는 8월부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자료수집과 가공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순사건 아카이브는 10월 19일 제73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에 맞춰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개선사항을 보완한 독립적인 ‘여순사건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전 국민에게 여순사건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창구 마련이 기대된다.

아카이브는 사건으로 보는 여순사건, 각종 미디어

자료, 역사 유적지 소개, 추모의 공간알림마당 등 총 5개의 콘텐츠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후속 조치 사업과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피해 신고 접수 및 홍보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순사건 아카이브는 여순사건의 아픈 역사를 알리는 추모의 공간이자 국민 모두가 새로운 기억을 남기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읍 신월리(현재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한 제14연대의 일부 군인이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이다. 수많은 지역민(민간인, 군·경)이 희생당한 현대사의 비극으로 1만여 명의 희생자 중 5000여 명이 여수 거주민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초 발생지였던 여수시는 정부군에 의한 진압이 이뤄지면서 도심이 불타는 등 가장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권오봉 여수시장이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뒤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법안명 작자를 위령비 제단에 헌물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 로컬푸드 믿고 구입하세요 광양시 매월 잔류농약검사

광양시가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 6개소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 중인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매월 실시한다.

광양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예산 6000만원을 들여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판매 중인 농산물의 시료 수거 후 ‘농수산물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민간분석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는 다성분 동시 분석법으로 살충제, 살균제, 성장조절제, 제초제의 320가지 성분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농가에서 출하한 농산물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고, 과태료 처분과 함께 1개월간 출하를 금지한다.

시는 상반기에 5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109건을 검사했다.

하반기에는 4월에 개장한 광양동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한 6개소를 대상으로 300여건 검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양=김재수 기자 kds@kwangju.co.kr

## 이순신 ‘신에게는 아직 열두척이’ 쓴 곳 보성군, 신흥동산 역사 문화 공간 조성

내년 6월 완공

보성군이 신흥동산(조종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8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신흥동산은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열두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는 ‘상유십이장계’를 쓴 곳으로 알려진 ‘열선루’가 중간된 장소로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공원이자, 군은 이번 신흥동산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신흥동산을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만들 방침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여수시, 첨단장비로 산단 환경관리

드론 약취 측정기·가스탐지 카메라 등 3차원 장비 10월부터 운영

여수시가 첨단장비를 활용해 산업단지 및 약취관리지역의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여수시는 지난 6월 국비 3억7000만원 등 총 9억 원을 들여 환경감시를 위한 첨단장비를 구입했다.

주요 장비는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약취나 대기오염물질 100여종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과 대기 중의 약취 측정이 가능한 드론 측정장비이다.

또 석유화학단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환경감시를 위한 광학가스탐지(OGI) 카메라도 포함됐다.

시는 시운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여수국가산단과 삼일자원비축산단, 화양농공단지의 약취와 대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곡성군 주민 감동 시책 호응

행복우산 대여·아기주민증 발급·다문화 민원도우미 등

행복우산 대여와 아기주민증 발급, 다문화가정 배려 시책,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곡성군이 올해 상반기 추진한 시책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

행복우산 대여 서비스는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경우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우산을 무료로 빌려주는 시책으로 지난해부터 군 청사와 11개 읍면에 1000개의 우산을 비치해 놓고 있다.

올해부터 추진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출생 후 1년 이내의 아기를 대상으로 신청 가정에 태명, 혈액형 등 9개 항목이 기재된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아기에 대한 기본정보가 포함돼 있어 병원 등 각종 시설을 방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이 불편 없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다문화여성 민원 안내도우미를 운영했다.

도우미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서 작성, 수혜적 서비스 안내,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또 41종의 민원서류를 4개 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로 제작해 외국인들의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증명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육외 무인민원 발급기도 대폭 확대해 지난 2019년 3만4461건에서 지난해 5만1280건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곡성군 관계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작은 배려와 세심한 손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kwangju.co.kr

## 구례정착 보금자리 입주 희망자 모집

군, 25일까지

구례군이 오는 25일까지 ‘구례정착 보금자리 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보금자리 4개소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방치돼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용료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10만원이며 입주 계약기간은 1년 이내이며, 마을과 협의를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입주기간 중 공공요금 등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입주 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갖춘 후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